



전주시민축구단이 올 시즌 출격 준비를 마쳤다. 사진은 전주시민축구단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올 시즌 K3 승격 준비 끝

전주시민축구단, 프로출신·K3·K4 등 세미프로출신 등 37명 영입

“많은 골로 재미있는 경기 펼칠 것”… 내일 서울중랑과 홈 개막 경기

전북 유일 실업팀인 전주시민축구단이 올 시즌 출격 준비를 마쳤다. 24일 전주시민축구단에 따르면 2022시즌을 앞두고 K3 승격을 위해 프로 출신과 K3와 K4 세미프로출신, 신인 등 모두 37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시민축구단의 이번 시즌 선수 영입은 구단 창단 이후 최대로 K4 우승과 함께 K3 승격을 위해서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전주는 프로서 활약한 검증된 공격수 김도형(31)을 영입했고, FC서울 심원성(22), 광주FC 이종서(26), 경남FC 출신 김종진(22), 포항스틸러스 양태열(26), 서울이랜드 고준영(21), 안산그리너스 임재관(26) 등

을 영입했다. 또 세미프로인 K3와 K4에서 활약한 수비수 여인혁(대전코레일 29)과 김영준(천안시청, 23), 성문경(김포시민, 23)이 미드필더에 박광윤(충주시민, 25)과 박범찬(양주시민, 20), 전산해(양주시민, 22)가 입단했다. 이와 함께 성인무대 첫 발을 내딛는 공격수에 안재선(광주대, 23)과 권태준(동원과학기술대, 21), 곽동주(부산외국어대, 23), 허근혁(전주대, 21), 원지식(단국대, 22), 박지수(동의과학대, 20)을 미드필더에 신윤호(열린사이버대, 21), 이태훈(남부대, 22), 구경민(안동과학대, 22), 용환빈(전주대, 21), 최재원(전주대, 23), 박건준(여주대, 21), 안은관(예산삼교고, 19)을, 수

비수에 조영혁(한라대, 22)과 이재목(수성대, 20), 고지성(청주대, 21), 이주성(선문대, 19), 양승민(전주대, 21), 정지오(전주대, 21), 정재원(경기칼빈대, 21), 이요셉(전주대, 21)을 영입했다. K4리그 최저 실점에 도전하는 GK에는 엄문기(29)와 정일수(신성대, 20), 이지상(수원공고, 19)이 입단했다. 양영철 감독은 “올해는 지난 시즌 부족한 포지션 위주로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다”면서 “올 시즌에는 K4리그 우승과 함께 K3리그 승격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팬들에게 이기는 경기, 많은 골로 더욱 더 재미있는 경기를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민축구단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전주종합운동장에서 서울중랑축구구단과 2022 K4리그 홈 개막 경기를 갖는다. /장은성기자



“레드불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 보여줄 것”

전북현대 백승호, 레드불과 스폰서십 계약… 첫 국내 축구선수

글로벌 에너지 음료 회사 레드불이 24일 프로축구 K리그(1부) 전북 현대의 백승호와 후원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레드불의 국내 축구선수 스폰서십 계약은 백승호가 처음이다. 앞서 프로야구에서 이정후(키움)가 계약을 맺었다. 스페인 FC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백승호는 지난해 전북에 입단해 K리그 첫 5연패

달성에 일조했다. 25경기에 출전해 4골을 넣었다. 백승호는 “레드불을 경기 전과 중간에 틈틈이 마시는 게 무뎠다. 레드불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스포츠클레이밍 김지인, 펜싱 박상영, 이스트림 태권도 신민철 등이 레드불의 후원을 받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국기 태권도 활성화 위해”

태권도진흥재단, 대외협력위 출범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승환)은 24일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대외협력위원 위촉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가졌다. 대외협력위원회는 국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 자문위원으로 구성, 태권도를 비롯해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 발전을 위한 대외 협력 사항 추진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건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민상기 위원장을 비롯해 고봉수 전라북도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 김상만 인제대학교 의원, 배봉수 조계종 총무원 대외협력전문위원, 전제원 강원도체육회 부회장 등 11명이 활동하게 된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승환 이사장은 “학계, 체육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라며 “국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우리 재단의 노력과 함께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들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패럴림픽 출전 선수들, 베이징으로

내달 4일 개막… 한국,銅 2개 목표

2022 베이징동계패럴림픽에 출전할 한국 선수단이 25일 중국 베이징으로 향한다. 한국은 다음달 4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베이징, 장자커우, 옌칭 등에서 열리는 베이징동계패럴림픽에 선수단 82명(선수 32명·임원 및 관계자 50명)을 파견한다. 윤경선 선수단장을 필두로 본진은 25일 오전 출국한다. 알파인 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등 6개

종목, 78개 세부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한국은 작전 대회인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따 공동 16위에 지리했다. 당시 크로스컨트리 스키의 신의현이 남자 좌식 7.5km에서 한국 동계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수확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종합 25위권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휠체어컬링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알파인 스키 종목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뉴시스

전북체육회, 전보 인사 단행

신규 직원 2명 채용 따라 인력 적재적소에 배치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2020년 8월 이후 두 번째다. 이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다. 또한 신규 직원(9급) 2명 채용에 따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조정본부장과 체육진흥본부장은 자리 이동이 없으며, 실·과장급 이하 실무자들의 인사 폭이 컸다. 신준섭 사무처장은 “올바른 체육행정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며 “신속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체육회가 단행한 전보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대외협력실 = ▲이재민 실장 ▲신동석 대리, ▲최승재 대리, ▲김경아 주무 <총무회계과 = ▲김충상 과장 ▲민봉식 팀장, ▲박진현 주무, ▲이준희 주무, ▲신규직원 <마케팅기획과 = ▲장인석 과장 ▲김상일 대리, ▲임소영 주무, ▲송재인 주무 <전문체육과 = ▲김완 과장, ▲유준석 팀장, ▲노후영 대리, ▲신규직원 <영재복지과 = ▲양재운 과장 ▲김미려 팀장, ▲김지현 대리 <여가스포츠과 = ▲최병기 과장 직무대리, ▲김희수 팀장, ▲김천우 주무 <중목지원과 = ▲김중하 과장 ▲박철민 팀장, ▲김병곤 주무, ▲양윤관 주무(파견) /장은성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